

테마칼럼

여성시대

정치프리뷰

정치이론

문화향기

문화를 바꾸보자



조현종

광주가 문화적으로 되려면, 비문화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점차 문화적인 것으로 채워야 한다. 전시장과 공연장은 문화적 품격을 가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조급함과 반칙들은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속에서 문화만큼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따져 그 뜻을 정의하려면 문화처럼 머뭇거리게 되는 단어 또한 많지 않다. 그것은 문화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양식', 즉 '삶의 양태'쯤으로 해주자. 그러면 문화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 또한 정의하는데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문화적이지 않는 것, 즉 비문화적인 것, 나아가 게르만식으로 해석해서 야만적인 것을 떠올리면 확연해진다. 물론, 문화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선택의 기준차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잦아질 수 있다. 이를 성숙기에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려면 유리 피라미드 앞 광장에서 두 시간 정도 줄을 서야 한다. 나무 그늘도 없지만 자리를 대신 잡아주는 건 놓여져 있지 않으니 파리의 피아블 아래서 꼼짝없이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줄서기가 끝나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질주하듯 앞 다투어 달려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세기의 거장들이 남긴 미술작품을 보기 위해 두 시간씩이나 기다렸으니 예의 조급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질주행렬은 일정한 목표물을 경유하여 다시 썰물처럼 밖으로 빠져나간다. 마치 단축마라톤의 반환점을 돌아오는 모습처럼 그들은 단지 목표물에 눈도장을 찍었으리라. 드

라크로아의 자유의 여신,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상 등이 그들의 목표물이다. 이들에게 전시물의 숨겨진 내용과 종류, 작가의 생애, 관련된 미술사조의 흐름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암스테담에 가면 네덜란드 국립리제박물관이 있다. 인근에 보석박물관과 고미술관이 있어 여행객들은 언제나 넘쳐난다. 저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 야경꾼이 이 박물관에 걸려 있다. 연극의 한 장면을 그린 것이라고도 하는 이 그림의 앞쪽은 관람객을 위해 비워두고, 낮은 나무의자를 놓아 차분히 앉아 그림을 감상하도록 배려하였다. 한 칸에는 이 그림이 걸릴 벽면이 좁아 그림의 일부를 잘라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내력을 꼼꼼하게 적어 놓았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위대한 그림을 바로 앞에 두고 '야경'은 어디에 있는나고 물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야경꾼이라는 제목을 줄여 부른 것이겠지만, 머릿속에는 암스테담의 찬란한 밤 향기를 겨냥해서 인지도 모른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은 찾아주는 관람객이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도덕적 품격을 가진 여유로운 사람들이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지역의 문화수준은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응하는 시간과 비례하는 수가 많다. 따라서 문화수준의 평가는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양식에 근거한다. 그러려면 우선 시민이 문화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민이 문화적이지 않으면 그 도시 또한 문화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광주는 문화를 통한 발전 전략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광주가 가진 민주, 인권, 평화를 주제로 한 정신적 가치가 깔려 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신인본도시의 구현이 목표이다. 여기에서 광주에 가면 볼만한 건물이 탐낼 만 한 음식이 많거나 하는 것을 세상에 대고 알리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삶이 문화적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광주가 살기에 좋다면 그 사실은 금방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광주의 정신과 예술적 바탕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시점에 와 있다. 광주가 문화적으로 되려면, 비문화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점차 문화적인 것으로 채워가야 한다. 전시장과 공연장은 문화적 품격을 가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조급함과 반칙들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장구한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지고 살아 숨 쉬는 광주문화를 세워가야 한다. 바로 문화중심도시는 역사적 전통을 자양분으로 한 문화광주를 가꾸는 것이다. <국립광주박물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경비 반납 요구받은 지자체 관광성 외유

경비반납 요구받은 지자체 관광성 외유... 감사원이 전남도청과 보성군의회에서 실시한 해외연수에 대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부당하게 집행된 여비를 반납하도록 촉구했다고 한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의회위원이 해외연수를 빙자해 수 천만원의 협세를 들여 여행했다면 경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은 자극히 당연한 일이다. 감사원이 밝힌 이들 지자체의 해외연수·출장경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보성군의회는 지난해 10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여비 5천121만여원을 들여 '선진 지방자치 시찰'을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하지만, 현지기관 방문은 아예 하지 않고 관광지만 돌러보고 귀국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연수에서는 스키랑카, 두바이, 일본을 방문기로 했다가 느닷없이 케냐, 탄자니아로 변경하고선 14일간의 일정 모두를 사파리 케츠 쇼 등 관광에 허비했다. 전남도 공무원과 의회위원 등 17명도 지난 2005년 9월 '해외추진처미팅'을

3개 시·도 남해안 공동개발 기대 크다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가 남해안 개발에 손을 맞잡았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는 13일 경남 통영에서 제 3차 남해안 발전공동협의회를 열고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회간접자본을 비롯 기반시설 확충에 공동노력하고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을 가꾸어 국제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개 시·도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SOC 확충 및 엑스포 특별법 조기 제정에 협력하고 엑스포를 범남해안권 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또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일주도로와 고속화철도 건설, 해양관광산업 육성 등 3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기로 했다. 부산에서 경남을 거쳐 전남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의 절경을 자동차와 기차, 유람선 등을 통해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해안 개발을 위한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 여수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린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서 2012년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됐고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남해안 해양관광시대를 본격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남해안시대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이 전제돼야 한다. 여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도로 및 철도 건설과 일주도로, 고속화철도, 해양크루즈 등을 추진하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관광 및 숙박시설 등의 확충에도 자치단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전남과 부산, 경남이 힘을 합치면 여수엑스포는 성공할 수 있다.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 전남은 물론 부산과 경남의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수 엑스포는 지역발전을 앞당겨 남해안시대를 여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3개 시·도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남해안을 넘어 제주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해양관광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無等鼓

겨울 진객(珍客)은 철새다. 가장 빨리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청둥오리와 흰병검둥오리고, 뒤를 이어 가창오리·기러기·고방오리가 남하한다. 두루미는 12월 늦게 한반도를 찾는다. 우리나라에 오는 겨울철새는 100만 마리로, 그중 30~40종 40여만 마리가 해남 고천암과 영산호 등 전남에서 한겨울을 난다. 신안 흑산도에는 철새 연구센터가 있다. 센터 연구진들은 중간 기착지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철새 다리에 가라지를 채워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오는 2010년까지는 90여종을 들여 생태 전시관·조류 조각공원·습지식물 생태원을 갖춘 3만3천740㎡ 규모의 '국제철새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철 따라 날아오는 게 어디 철새뿐이랴. 대선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정치 철새들도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선거 뒤를, 어찌어찌 한 자리라도 꿰차보려는 심보다. 철새는 반가운 손님이지만, 무서운 조류 독감을 전염시킨다. 정치 철새들

철새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김성호

연말이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많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입을 손으로 가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자신의 입 냄새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걱정돼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성인이 있어 입 냄새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치주질환(풍치)이 가장 큰 원인이다. 치주질환은 전 인류의 구강 내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임상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잇몸의 출혈과 종창 치주낭의 형성 및 치조골(잇몸뼈)의 파괴 등이 치아상실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입냄새 원인 치주질환 예방법

치주질환은 일으키는 주원인은 치태와 치석이다. 치약광고 중 '안티프라그'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 '프라그'가 치태를 지칭한다. 치태는 치석의 전 단계에 해당하며, 치태 속에 있는 세균은 잇몸을 상하게 하는 독소와 유리 산소를 만들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파괴한다. 이럴 경우 잇몸이 쉽게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난다. 치태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면 치아 표면의 무기질과 결합해 단단한 치석으로 변한다. 치석은 치석제거술(스케일링)로만 제거가 가능하다. 치석이 생기면 치태는 더 잘 쌓이게 되고 이는 입 냄새의 요인이 된다. 또 잇몸과 치아 사이에 생긴 치석으로 인해 잇몸과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이 부위에 '치주낭'이라는 작은 주머니가 생긴다. 여기에 치태가 쌓이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파괴돼 심할 경우 치아가 유

도시가스 설치 3년도 안걸리는데 2~3만원이라니 바가지 아닌가

이사를 할 때마다 내야 하는 도시가스 설치비에 불만이 많다. 정말 3년도 채 걸리지 않는 가스라인이 연결돼 2~3만원씩 내야 하는 것인가. 도시가스측에 이사 사실을 통보하면 이사 당일날 도시가스측 직원이 나타나 도시가스를 연결해준다. 길어야 3~5분 정도인데 비용은 3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여름철 도시가스 사용료의 경우 7천 원 정도의 것을 감안하면 설치비 2~3만원

▲윤용숙·광주시 서구 벽진동

기고 김희석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입학 이후 학교의 총학생회 선거 기간을 맞아 선거본부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대학의 선거문화를 체험해 보았다. 서로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일 없이 서로의 정책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공약을 비교해 후보를 평가하는 선거문화가 감명 깊었다. 이번에 처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갖게 된 나는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선 진행 상황을 면면히 따

비방 일삼다 공약도 못알리는 대선

보고 검토 중이다. 하지만 대선에서는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와 같은 정직함과 투명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제기된 'BBK 의혹'을 포함하여 언론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대선관련 내용은 대부분 후보의 비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비방은 대통령의 자질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비방의혹은 검침이 아닌 타 후보 진영에서 제기된 것이다. 비방의혹은 진위여부를 떠나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된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비리를 들추어내는 일이 많아진다면 이번 대선은 단순히 후보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선거가 되기 쉽다.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다는 점에서 각 대선 후보들의 철

부모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졸업식 주말에 했으면

졸업식의 경우 대부분의 초·중·고와 대학에서 평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평일 시간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회사 업무로 바쁜 시간이다. 자녀를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내거나 핑계를 대고 직장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 때문에 어머니만 참석할 채 졸업 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다. 학교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졸업식, 이왕이면 부모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예컨대 평일 저녁 시간, 토·일요일 등 주말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아간 촛불을 들고 졸업식을 하는 광경도 접했는데 색다른 생각을 했다. 교직원들 입장에서는 토·일요일 졸업식을 하게 되면 주말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겠지만 졸업식 의미를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꿔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송희건·광주시 북구 대령동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 note about content quality.